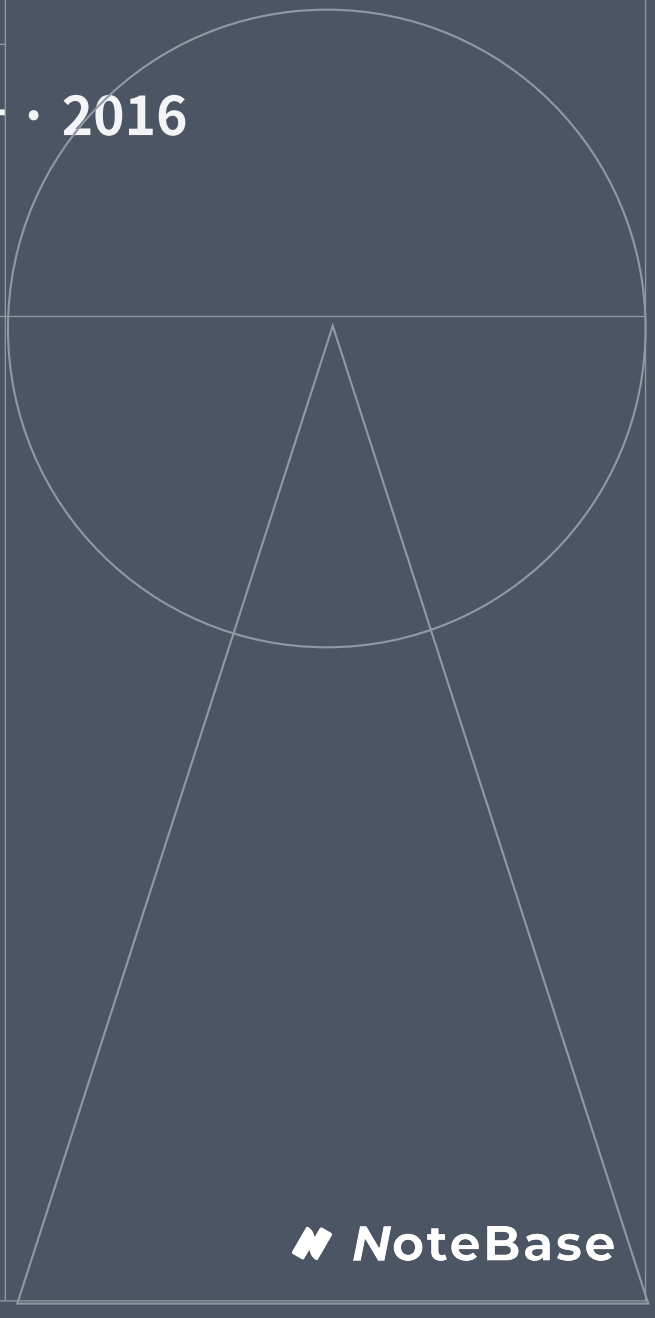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6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6

문 1. 신석기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무덤과 널무덤이 유행하였다.

② 방추차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었다.

③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④ 영혼숭배와 조상숭배가 나타났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과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토기·간석기·가락바퀴를 사용하며 정착 생활을 한 시대이다. 청동기 시대는 계급 분화가 진행되고 고인돌, 돌널무덤, 독무덤 등의 무덤 양식이 나타난 시대이다. 신석기는 가락바퀴·민무늬토기와 빗살무늬토기·원시 신앙, 청동기는 고인돌·돌널무덤·독무덤으로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독무덤과 널무덤'이 신석기 시대에 유행하였다는 표현이 틀렸다. 독무덤과 돌널무덤은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다.
② O: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고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③ O: 신석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 등 여러 토기를 사용하였다.
④ O: 신석기 시대에는 영혼숭배와 조상숭배를 비롯한 원시 신앙이 나타났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신석기의 토기·가락바퀴 같은 생활 도구와 청동기의 무덤 양식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독무덤과 널무덤'이라는 무덤 양식은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에 연결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석기 시대의 선지는 토기, 간석기, 가락바퀴, 농경·목축의 시작, 원시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인돌·돌널무덤·독무덤이 보이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신석기에는 빗살무늬토기·가락바퀴, 청동기에는 고인돌·돌널무덤·독무덤이 나타난다.

NoteBase

문 2.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백제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진(晉)나라 때에 구려(句麗)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역시 요서, 진평의 두 군을 차지하였다.
- 『통전』 -

①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케 하였다.
②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③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다.
④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전』의 요서·진평군 점령 기록으로 근초고왕의 대외 팽창을 파악하고, 백제 왕별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근초고왕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며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문주왕은 한성이 함락된 뒤 웅진으로 천도하였고,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 동맹을 강화하였다.
성왕은 중국 남조와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초고왕은 371년에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사료의 요서·진평군 진출과 함께 근초고왕의 대외 팽창을 보여 준다.
② X. 틀린 표현은 '미륵사를 창건하였다'이다. 미륵사는 무왕이 익산에 창건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였다'이다. 웅진 천도는 문주왕의 업적이고, 신라와의 혼인 동맹 강화는 동성왕의 업적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이다. 이는 성왕의 업적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근초고왕·무왕·문주왕·동성왕·성왕의 업적을 한 문장에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③은 웅진 천도와 신라 동맹 강화를 서로 다른 왕의 업적으로 결합하였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서·진평군, 평양성 공격, 고국원왕 전사는 근초고왕으로 묶어 판단한다. 천도·사찰·대일 불교 전파처럼 왕별 대표 업적을 먼저 분리하면 혼합 선지를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근초고왕=평양성·고국원왕 전사, 무왕=미륵사, 문주왕=웅진 천도, 동성왕=신라 혼인 동맹, 성왕=대일 불교 전파이다.

NoteBase

문 3. 고려 말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 차등 지급하였다.

② 지방거주의 한량품관에게 군전으로 5결 혹은 10결씩 지급하였다.

③ 수조율은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30두로 정하였다.

④ 전민변정도감의 주재 하에 분급 대상인 관인 선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말 과전법의 분급 기준·수조 규정과, 토지 제도 관련 도감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과전법은 관료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하여 관료의 경제 기반을 마련한 제도이다.
급전도감은 토지를 분급하는 일을 맡은 기구이다.
전민변정도감은 권세가가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는 기구이다.
두 기구의 결정적 차이는 '토지 분급'인지 '불법 점탈 토지·노비의 변정'인지에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과전은 관인의 관품에 따라 18과로 나누어 제1과 150결부터 제18과 10결까지 차등 분급하였다.

② O. 지방 거주의 한량품관에게는 본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전 5결 또는 10결을 지급하였다.

③ O. 과전법의 수조율은 공전·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30두로 정하였다.

④ X. 틀린 표현은 '전민변정도감의 주재 하에'이다. 전민변정도감은 불법으로 점탈된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는 기구이다. 분급 대상 관인을 선정하고 토지를 분급하는 일은 급전도감이 맡았다.

오답 포인트

④는 토지 문제와 관련된 도감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전민변정도감과 급전도감을 혼동하게 만든다.
전민변정도감은 변정, 급전도감은 분급이라는 업무 차이로 구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전법 선지에서는 먼저 분급 대상과 결수, 수조율을 확인한다. 이어 도감이 나오면 불법 토지·노비를 바로잡는 일은 전민변정도감, 토지를 나누어 주는 일은 급전도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전법: 18과 150결~10결, 1결 30두. 전민변정은 바로잡기, 급전은 나누어 주기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자료에 나오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힘써 교정하고 쇄신하니 치도(治道)가 맑고 깨끗하여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게 된 것은 특히 장점인 것이요, … (중략) … 쇄국을 스스로 장하다 하여 대세의 흐름을 부질없이 반대하였으니 이것은 단점이요 실정인 것이다.

① 군국기무처에서 총재관을 역임하였다.

② 을미의병이 확산되자 해산권고 조칙을 발표하였다.

③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청군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④ 임오군란으로 집권하여 5군영을 복구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정 정비와 쇄국 정책으로 평가된 흥선대원군의 활동을 시대별 사건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 호포제 실시, 사창제 정비 등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하여 대세의 흐름을 거슬렀다는 비판도 받는다. 임오군란 뒤에는 다시 정권을 장악하여 무위영과 장어영을 없애고 5군영을 복구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군국기무처에서 총재관을 역임하였다'는 흥선대원군의 활동이 아니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흥선대원군은 임오군란 뒤 정권을 장악하여 구식 군영 체제를 복구하였다.

② X: '을미의병이 확산되자 해산 권고 조칙을 발표하였다'는 고종과 관련된 일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X: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청군의 개입을 요청하였다'는 흥선대원군의 활동이 아니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흥선대원군은 임오군란 뒤 청에 납치되어 갑신정변 당시 청에 억류되어 있었다.

④ O: 임오군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없앴던 5군영을 복구하고 무위영과 장어영을 폐지하였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기, ②의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뒤, ③의 갑신정변은 흥선대원군이 청에 억류된 시기의 사건이다. 흥선대원군과 직접 연결되는 임오군란 뒤의 조치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호포제·경복궁 중건·통상 수교 거부'와 연결하고, 임오군란 뒤 재집권하여 5군영을 복구한 사실까지 함께 확인한다. 갑오개혁·을미의병·갑신정변은 각각 더 뒤 시기의 사건인지 먼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흥선대원군 = 재정 정비·쇄국 정책·임오군란 뒤 5군영 복구이다.

NoteBase

문 5. 괄호 안에 들어갈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 )을/를 조직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중략) …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①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를 수행하였다.

② 조선 본토에 투입할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였다.

③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항산 지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④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조직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다른 독립군 부대의 활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광복군은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정규 군대이다. 광복 직전에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고, 조선 본토에 투입할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였다. 한국독립군은 만주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 전투를 벌였고, 조선의용군은 화북 태항산 지구에서 팔로군과 함께 활동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쌍성보 전투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벌인 전투이다. 틀린 표현 →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가 아니라 ‘한국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가 옳다.
② O. 한국광복군은 광복 직전 조선 본토에 투입할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③ X.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항산 지구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한 부대는 조선의용군이다. 틀린 표현 → ‘한국광복군’이 아니라 ‘조선의용군’의 활동이다.
④ X.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군과 연합하려 한 활동은 러시아 혁명기 연해주 한인 무장 세력과 관련된다. 한국광복군은 광복 직전 미국 OSS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틀린 표현 →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이 아니라 ‘미국 OSS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한 것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쌍성보 전투와 ③의 태항산·팔로군은 모두 중국 지역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한국광복군의 활동처럼 보이기 쉽다. 부대 이름보다 전투명, 활동 지역, 연합 상대를 함께 연결해야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 '한국광복군'이 보이면 국내정진군 편성, 미국 OSS와의 국내 진공 작전 준비를 찾는다. 쌍성보는 한국독립군, 태항산·팔로군은 조선의용군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광복군은 임시정부·국내정진군·OSS,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조선의용군은 태항산·팔로군이다.

NoteBase

문 6. 삼국시대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 수도인 평양에는 장안성이 축조되었다.

② 백제 사비도성에는 중심지역 외곽에 나성을 둘렀다.

③ 신라는 산성을 축조하여 도성을 방어하였다.

④ 고구려 오녀산성은 국내성 방어를 위하여 축조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삼국의 도성과 이를 보완한 방어 시설의 위치·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지 도성은 행정·생활의 중심이 되고, 산성은 유사시에 방어 거점이 된다. 고구려는 국내성 인근의 환도산성과 평양의 장안성을, 백제는 사비도성의 나성을, 신라는 도성을 지키는 산성을 활용하였다. 오녀산성은 고구려 초기 도성인 졸본 지역의 산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삼았을 때 그 도성으로 장안성을 축조하였다. 장안성은 평양에 조성된 고구려 후기의 도성이다.
② O. 백제 사비도성은 중심 지역 바깥을 나성으로 둘러 방어하였다. 나성은 도성의 외곽을 감싸는 성곽이다.
③ O. 신라는 도성 방어를 위해 산성을 축조하였다. 평지의 도성과 주변 산성을 함께 활용한 방어 방식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국내성 방어를 위하여'이다. 오녀산성은 국내성의 방어 산성이 아니라 졸본 지역에 자리한 고구려 초기 도성의 산성이다. 국내성 방어와 연결되는 산성은 환도산성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고구려의 산성 이름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오녀산성과 환도산성을 혼동하면 오녀산성을 국내성 방어 시설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구려 산성이 나오면 먼저 지역을 확인한다. 졸본 지역이면 오녀산성, 국내성 주변의 방어 산성이면 환도산성, 평양 도성이면 장안성으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오녀산성은 졸본, 환도산성은 국내성 방어, 장안성은 평양 도성이다.

NoteBase

문 7. 고려 시대 혼인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혼 후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서류부가혼'의 혼속이 있었다.

② 국왕을 비롯한 종실의 경우 동성근친혼인 족내혼의 관행이 있었다.

③ 원의 영향으로 여러 명의 처와 첩을 두는 '다처병첩'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④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양육해 혼인시키는 '예서제'가 있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혼인 풍속인 서류부가혼·족내혼·예서제와 다처병첩의 법적 지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류부가혼은 혼인한 뒤 신랑이 신부 집에 머무르는 혼인 형태이다.
족내혼은 같은 친족 집단 안에서 혼인하는 관행으로, 고려 왕실·종실에서 동성 근친혼의 형태로 나타났다.
예서제는 공녀 선발을 피하려고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길러 장차 혼인시키던 풍습이다.
다처병첩은 여러 처와 첩을 두는 현상을 말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일부 있었다는 것과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류부가혼은 결혼 뒤 신랑이 신부 집에 머무르는 혼인 풍속이므로 옳다.
② O. 고려 왕실과 종실에는 동성 근친혼인 족내혼의 관행이 있었으므로 옳다.
③ X. 틀린 표현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이다. 원의 영향으로 다처병첩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는 아니었다.
④ O. 예서제는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양육한 뒤 혼인시키던 풍습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다처병첩이 실제로 일부 존재한 사실을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제도적 사실로 바꾸어 놓았다. 관행의 존재와 국가의 법적 허용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혼인 풍속에서는 신랑의 거주지이면 서류부가혼, 왕실 친족 간 혼인이면 족내혼, 공녀 회피와 어린 신랑의 처가 양육이면 예서제로 판단한다. 다처병첩은 관행이 있었다는 서술과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서술을 분리하여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서류부가혼은 신랑이 처가에 머무름, 예서제는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기름, 다처병첩은 법적 허용이 아님이다.

NoteBase

문 8. 아관파천 기간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① 청량리행 전차를 운행하는 기사

② 한성순보를 배부하는 관리

③ 대한천일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④ 백동화를 주조하는 주전관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아관파천 기간인 1896~1897년에 실제로 존재한 제도와, 그 뒤에 등장한 근대 시설·기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관파천은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 간 뒤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때 전환국에서는 백동화를 주조하였다. 반면 전차 운행과 대한천일은행의 설립은 1899년의 일이고, 한성순보는 1883년에 발간된 뒤 1884년에 폐간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청량리행 전차 운행은 1899년에 시작된 일이다. 틀린 표현은 '청량리행 전차를 운행하는'이며, 아관파천기에는 아직 전차가 운행되지 않았다.
② X. 한성순보는 1883년에 창간되고 1884년 갑신정변 뒤 폐간되었다. 틀린 표현은 '한성순보를 배부하는'이며, 아관파천기에는 한성순보를 배부하지 않았다.
③ X.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에 설립되었다. 틀린 표현은 '대한천일은행에서 근무하는'이며, 아관파천기에는 아직 대한천일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
④ O. 전환국에서 백동화를 주조하였으므로, 백동화를 주조하는 주전관은 아관파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근대화와 관련된 시설·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아관파천기와 함께 묶기 쉽다. 그러나 전차 운행과 대한천일은행은 모두 1899년의 일로, 1896~1897년인 아관파천보다 뒤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기 판단 문제에서는 사건의 연도를 먼저 범위로 잡고, 선택지의 시설·신문·은행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를 대조한다. 아관파천기는 1896~1897년이므로 1899년 이후의 전차와 은행은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아관파천(1896~1897)에는 백동화, 1899년에는 전차 운행·대한천일은행이 연결된다.

NoteBase

문 9. '무단통치'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광업령으로 일본 자본의 광산 진출을 촉진하였다.

②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③ 토지조사령에서 황무지의 국유지 편입을 규정하였다.

④ 조선어업령으로 황실 소유 어장을 일본인 소유로 재편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단 통치기 조선총독부의 경제 수탈 정책과 그 정책의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사령은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 사항으로 묶어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한 제도이다. 토지조사령은 토지 소유를 신고하게 하고 소유권을 사정하여 미신고지 등을 총독부 소유로 편입하는 데 이용된 제도이다.
조선광업령과 조선어업령은 각각 광산과 어장을 일본 자본·일본인 중심으로 재편한 제도이다. 황무지 관련 국유지 편입은 토지조사령이 아니라 병합 이전의 국유미간지이용법과 관련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광업령은 광업권을 허가제로 통제하여 일본 자본이 조선의 광산 자원에 진출·독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② O. 회사령은 회사 설립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이므로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토지조사령에서 황무지의 국유지 편입을 규정하였다'이다. 황무지의 국유지 편입과 관련된 것은 병합 이전 1907년의 국유미간지이용법이며, 토지조사령은 토지 소유의 신고와 사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④ O. 조선어업령은 황실 및 개인 소유 어장을 일본인 소유 중심으로 재편하여 일본인의 어업권 장악을 뒷받침하였다.

오답 포인트

③은 토지 수탈이라는 큰 흐름만 같을 뿐, 황무지 관련 제도와 토지조사령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토지조사령의 핵심어는 '신고·사정'이고, 황무지 관련 핵심어는 '국유미간지이용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단 통치기의 경제 정책은 토지·산림·광산·어장·회사처럼 수탈 대상별로 나누어 본다. 토지는 토지조사령의 신고·사정, 회사는 회사령의 허가제, 광산은 조선광업령, 어장은 조선어업령을 연결하면 제도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토지조사령은 신고·사정, 황무지는 국유미간지이용법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글을 쓴 인물이 만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翡色)이라고 한다. 근래에 만드는 솜씨와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술그릇의 형상은 참외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그 위에 연꽃에 앉드린 오리 모양이 있다.

① 관학 진흥을 위해 국자감에 7재를 처음 설치하고 양현고를 두었다.
② 평양에 기자를 숭배하는 기자사당을 세워 국가에서 제사하기 시작했다.
③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지방의 주현에 향학을 증설하여 유교 교육을 확산시켰다.
④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5도호부 8목을 두어 지방제도를 완비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송 사신 서긍이 1123년에 쓴 『고려도경』의 청자 묘사로 인종을 파악하고, 고려 전기 국왕별 교육·지방 제도 정책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인종: 『고려도경』이 쓰인 시기의 국왕이며,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주현에 향학을 두어 유교 교육을 넓혔다.
예종: 국자감에 7재를 설치하고 양현고를 두어 관학을 진흥하였다.
숙종: 평양에 기자 사당을 세워 기자를 국가 제사 대상으로 삼았다.
현종: 5도 양계 체제를 정비하여 지방 통치 체계를 마련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자감 7재 설치와 양현고 설치는 예종의 관학 진흥책이다. 틀린 표현은 인종에게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예종이 시행하였다.
② X. 평양의 기자 사당 건립과 국가 제사는 숙종 때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인종에게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숙종이 기자 사당을 세우도록 하였다.
③ O. 인종은 국자학·태학·사문학·율학·서학·산학으로 이루어진 경사 6학을 정비하고, 주현에 향학을 두어 지방의 유교 교육을 확산하였다.
④ X. 5도 양계 체제의 정비는 현종 때의 지방 제도 정비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인종에게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현종의 업적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예종의 7재·양현고, 숙종의 기자 사당, 현종의 5도 양계처럼 고려 전기 국왕의 대표 정책을 인종과 바꾸어 제시한 점이 함정이다. 지문의 청자 묘사만 보고 정책 연결을 생략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도경』, 서긍, 비색 청자가 보이면 먼저 인종을 확정한 뒤 각 선지의 정책을 국왕별 대표 키워드와 대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종=경사 6학·향학, 예종=7재·양현고, 숙종=기자 사당, 현종=5도 양계이다.

NoteBase

문 11. (가)와 (나)의 풍습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력(殷曆)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國中) 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

(나)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가매장하여 형체만 덮이도록 했다가 가족과 살이 썩으면 뼈를 취하여 곽 가운데 넣는다.

- 『삼국지』 -

① (가) - 대군왕(大君王)은 없고 대대로 읍락에 장수(長帥)가 있었다.
② (가) -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③ (나) -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④ (나) -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지』 동이전의 풍습을 바탕으로 부여의 영고와 옥저의 골장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여의 영고는 은력 정월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제천 행사를 벌인 풍습이다. 옥저의 골장제는 시신을 가매장하였다가 살이 썩으면 뼈를 추려 한 집안의 큰 목곽에 함께 안치한 장례 풍습이다. 부여는 영고와 1책 12법, 옥저는 골장제, 고구려는 서옥제, 동예는 책화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대군장이 없고 읍락마다 장수가 있었다'는 옥저의 정치 모습이다. (가)는 영고를 지낸 부여이므로, 틀린 표현은 '(가)'이고 올바르게는 '(나) 옥저'이다.

② O. 부여는 1책 12법을 시행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도둑질을 하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③ X.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으로, 신랑이 신부 집 뒤에 서옥을 짓고 살다가 자녀가 장성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이다. (나) 옥저의 풍습은 서옥제가 아니라 골장제이다.

④ X. 책화는 다른 읍락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노비·소·말 등으로 배상하게 한 동예의 풍습이다. (나) 옥저의 장례 풍습은 책화가 아니라 골장제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나)를 옥저가 아닌 다른 나라의 대표 풍습과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서옥제는 고구려, 책화는 동예이며, 옥저는 골장제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천 행사의 명칭이 나오면 부여의 영고, 장례에서 뼈를 한 집안에 함께 안치하면 옥저의 골장제를 먼저 연결한다. 이어서 제도·풍습을 국가별 대표 키워드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부여는 영고·1책 12법, 옥저는 골장제, 고구려는 서옥제, 동예는 책화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낙랑군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ㄴ. 왕위가 처음으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ㄷ.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죽령일대에서 남양만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ㄹ. 천리장성을 쌓고 방어체제를 강화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ㄷ → ㄹ → ㄱ → ㄴ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구려의 왕위 계승 방식 변화와 영토 확장·대당 방어 정책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 고국천왕 때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처음 바뀌었다.
2. ㄱ — 미천왕이 313년에 낙랑군을 축출하여 대동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3. ㄷ —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고, 이후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에 이르는 선까지 영토를 넓혔다.
4. ㄹ — 영류왕 때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왜 이 순서: 왕위의 부자 상속 전환은 2세기 말의 일이고, 낙랑군 축출은 4세기 초, 평양 천도와 남진은 5세기, 천리장성 축조는 7세기 전반의 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 뒤에 ㄴ을 둔 순서가 틀렸다. 낙랑군 축출은 313년이고, 왕위의 부자 상속 전환은 그보다 앞선 고국천왕 때의 일이다. 틀린 표현: ‘ㄱ → ㄴ’ → 올바르게는 ‘ㄴ → ㄱ’이다.
② X — ㄹ을 ㄴ보다 앞에 둔 순서가 틀렸다. 천리장성 축조는 7세기 전반 영류왕 때이고, 부자 상속 전환은 2세기 말 고국천왕 때이다. 틀린 표현: ‘ㄹ → ㄴ’ → 올바르게는 ‘ㄴ → ㄹ’이다.
③ O — ㄴ(고국천왕) → ㄱ(미천왕) → ㄷ(장수왕) → ㄹ(영류왕)의 순서가 맞다.
④ X — ㄷ과 ㄹ을 ㄱ·ㄴ보다 앞에 둔 순서가 틀렸다. 평양 천도·남진은 5세기, 천리장성 축조는 7세기이므로 2~4세기의 ㄴ·ㄱ 뒤에 와야 한다. 틀린 표현: ‘ㄷ → ㄹ → ㄱ → ㄴ’ → 올바르게는 ‘ㄴ → ㄱ → ㄷ → ㄹ’이다.

오답 포인트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천리장성 축조를 모두 대외 팽창·방어 정책으로 묶어 비슷한 시기로 착각하기 쉽다.
장수왕은 5세기의 남진 정책이고, 천리장성은 당의 침략에 대비한 7세기 전반의 방어 정책이라는 점을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구려의 사건은 먼저 왕위 계승 방식 변화가 나타난 2세기 말, 낙랑군 축출의 4세기 초, 평양 천도와 남진의 5세기, 대당 방어의 7세기 전반 순으로 시대를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국천왕 부자 상속 → 미천왕 낙랑 축출 → 장수왕 평양 천도·남진 → 영류왕 천리장성이다.

NoteBase

문 13. 조선시대의 사행(使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전기 명에 파견된 사신은 조천사, 조선 후기 청에 파견된 사신은 연행사로 불렀다.

②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통신사를 매년 파견하여 교류하였다.

③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북학이 전개되었다.

④ 조선 후기 사행에서 역관들은 팔포무역 등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의 대외 사행에서 파견 대상에 따른 사신의 명칭과 사행이 수행한 외교·무역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행은 국가가 외교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한 사신 일행이다. 명에 파견한 사신은 조천사, 청의 수도 연경(북경)에 파견한 사신은 연행사라 하였다. 통신사는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며, 조선 후기 역관은 사행에 동행하여 사무역과 팔포무역에 참여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 전기 명에 가는 사신은 조천사, 조선 후기 청의 수도 연경에 가는 사신은 연행사라 하였다.

② X. 틀린 표현은 '매년'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였으나, 매년 정례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견하였다.

③ O. 청의 문물과 기술을 직접 접한 연행 경험은 북학파의 형성·전개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박지원·박제가 등은 청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였다.

④ O. 조선 후기 사행에 동행한 역관들은 지정된 포에서 이루어진 팔포무역과 사무역에 참여하여 대외 교역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오답 포인트

②는 통신사를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보냈다'는 사실은 맞지만, '매년'이라는 빈도를 덧붙여 틀리게 만든 선지이다. 사행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파견될 수 있으나 매년 파견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행 관련 선지는 먼저 대상국과 명칭을 연결한다. 명은 조천사, 청은 연행사, 일본은 통신사로 구분한 뒤, 파견 시기·횟수처럼 단정적인 표현이 역사 사실과 맞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명-조천사, 청-연행사, 일본-통신사 / 통신사는 매년 파견이 아니다.

NoteBase

문 14. 다음 격문을 작성한 세력이 제기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뜻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蒼生)을 도탄(塗炭)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磐石)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왜적의 무리를 내몰고자 함이라.

① 각종 무명잡세를 근절할 것
② 장교를 육성하고 징병제를 실시할 것
③ 조약을 체결할 때 중추원 의장이 서명할 것
④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학 농민군의 격문에 나타난 보국안민·제폭구민의 지향과 폐정 개혁 요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학 농민군은 탐관오리의 수탈을 없애고 일본 세력을 물리치며 백성을 구제하려 한 농민 운동 세력이다.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 요구에는 탐관오리 처벌, 신분 차별 철폐, 무명잡세 폐지 등이 포함된다.
갑오개혁의 홍범 14조는 근대적 국가 운영을 위한 제도 개혁안이고, 독립협회의 헌의 6조는 입헌적 정치 개혁 요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학 농민군은 백성의 부담을 늘린 각종 무명잡세를 없애는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격문의 '탐학한 관리'와 '창생을 도탄에서 건진다'는 표현이 이러한 요구의 배경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장교를 육성하고 징병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갑오개혁 때 제시된 홍범 14조의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동학 농민군이 탐관오리 처벌과 무명잡세 폐지 같은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이 주장을 동학 농민군의 요구로 본 점이다. 외국과의 이권 계약 및 조약에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도록 한 것은 독립협회의 헌의 6조 내용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민법과 형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동학 농민군이 수탈과 신분 차별을 없애는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③은 독립협회의 헌의 6조를 섞어 놓았다. 격문에 탐관오리 축출과 왜적 배척이 함께 제시되면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 요구를 연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국안민’, ‘제폭구민’, 탐관오리 축출, 왜적 배척이 보이면 동학 농민군으로 판단한다. 이어 선지에서 잡세 폐지·신분 차별 철폐·탐관오리 처벌 같은 폐정 개혁 요구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동학 농민군은 보국안민·제폭구민, 폐정 개혁안은 무명잡세 폐지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조칙 이후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제께서 조칙을 내리시길 “민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근본을 굳게 하는 방도는 제산안업(制產安業)하여 항심(恒心)이 있게 하는 것이니 누가 그 직책을 맡는 것인가 하면 정부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① 양잠전습소와 잠업시험장을 설립하였다.

② 금본위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③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농무아문을 설치하였다.

④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황제가 식산흥업과 제산안업을 정부의 책무로 제시한 사료를 통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파악하고, 그 추진 정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황제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토지 조사, 화폐 정리, 산업 진흥, 실업 교육 등을 추진한 개혁이다.
광무개혁의 산업 진흥은 양잠 장려와 상공·광업 교육처럼 생산 기반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아문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설치된 관청으로, 광무개혁과 시기가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양잠전습소와 잠업시험장은 양잠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대한제국의 산업 진흥 정책에 해당한다.

② O. 대한제국은 화폐 정리 사업의 하나로 금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려 하였다. 이는 근대적 경제 질서를 마련하려는 광무개혁의 정책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공무아문을 설치하였다'이다. 공무아문은 교통·체신·광산·건축 등 산업 관련 사무를 맡았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설치된 관청이다. 올바르게는 광무개혁 이후에는 양잠전습소·잠업시험장 설치와 상공·광업 교육 진흥 등이 추진되었다.

④ O. 상공학교와 광무학교는 상공업 및 광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한 실업 교육 기관이다. 광무개혁기의 산업 진흥 정책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산업정책을 담당했다는 기능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공무아문은 갑오개혁기의 기구라는 시기 오류가 있다. 사료의 '황제'와 식산흥업 방침은 대한제국기 광무개혁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 황제, 제산안업, 식산흥업이 나오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으로 연결한다. 이후 선택지는 토지·화폐·산업·실업 교육 정책인지와 함께 갑오개혁 등 다른 개혁 시기의 제도인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광무개혁은 양전·지계, 금본위제 추진, 양잠 장려와 실업 교육이다. 공무아문은 갑오개혁이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왕'이 조성에 관여한 문화유산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만불산(萬佛山)을 헌상하니 대종(代宗)은 이것을 보고 "신라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라고 경탄하였다.
– 『삼국유사』 –

<보기>
ㄱ. 감은사지 삼층석탑
ㄴ. 석굴암
ㄷ. 상원사 동종
ㄹ.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당 대종에게 만불산을 보낸 왕은 신라 경덕왕이며, 경덕왕 때 조성된 불교 문화유산을 가려 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덕왕 때에는 김대성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조성하였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문무왕의 뜻을 이어 신문왕 때 완성되었고,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때 만들어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ㄴ의 조합이다. ㄴ 석굴암은 경덕왕 때 조성되었지만, ㄱ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문무왕이 창건한 감은사의 탑으로 신문왕 때 완성되었다. 틀린 표현: ‘ㄱ, ㄴ’ → 올바르게는 ‘ㄴ, ㄹ’이다.

② X
ㄱ, ㄷ의 조합이다. ㄱ은 신문왕 때 완성된 유산이고, ㄷ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때 제작되었다. 틀린 표현: ‘ㄱ, ㄷ’ → 올바르게는 ‘ㄴ, ㄹ’이다.

③ O
ㄴ 석굴암과 ㄹ 불국사 청운교·백운교는 김대성이 경덕왕 때 조성한 불교 문화유산에 해당한다.

④ X
ㄷ, ㄹ의 조합이다. ㄹ은 경덕왕 때 조성되었지만, ㄷ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때의 유산이다. 틀린 표현: ‘ㄷ, ㄹ’ → 올바르게는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석굴암·불국사와 감은사지 삼층석탑·상원사 동종은 모두 통일 신라의 불교 문화유산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통일 신라 전체가 아니라 경덕왕 재위 기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불산을 당 대종에게 보낸 왕을 경덕왕으로 연결한 뒤, 문화유산을 왕별로 분류한다. 석굴암·불국사는 경덕왕, 감은사지는 문무왕·신문왕,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경덕왕·김대성 = 석굴암·불국사이다.

NoteBase

문 17. 다음에 서술된 군역제도의 양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보법을 실시하여 군정수를 크게 늘렸다.
ㄴ. 지방의 각 진관에서 방군수포가 행해졌다.
ㄷ. 평민에게만 징수해 온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ㄹ.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상층 양인들을 선무군관으로 처음 편성하여 수포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ㄴ → ㄱ → ㄹ → ㄷ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의 군역 운영이 조선 전기의 보법과 방군수포에서 조선 후기의 선무군관포, 19세기 호포제로 변화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보법 실시 — 조선 전기에 보법을 시행하여 군정 수를 늘렸다.
2. ㄴ 방군수포 — 16세기 무렵 진관 체제 아래에서 군역자를 포를 받고 방면하는 일이 행해졌다.
3. ㄹ 선무군관 편성·수포 — 균역법 시행 때 군역이 면제되던 상층 양인을 선무군관으로 편성하고 포 1필을 거두었다.
4. ㄷ 호포제 실시 — 1871년 흥선 대원군이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왜 이 순서: 선무군관포는 균역법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선 후기의 조치이고, 호포제는 그보다 뒤인 19세기의 조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ㄷ의 호포제를 ㄹ의 선무군관포보다 앞에 놓았다. 틀린 표현: ㄱ → ㄴ → ㄷ → ㄹ. 올바르게는 ㄱ → ㄴ → ㄹ → ㄷ이다.
② O — 보법, 방군수포, 선무군관포, 호포제의 시대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였다.
③ X — ㄴ의 방군수포를 ㄱ의 보법보다 앞에 놓았다. 틀린 표현: ㄴ → ㄱ. 올바르게는 조선 전기의 보법이 먼저이고, 이후 방군수포가 나타났다.
④ X — ㄴ의 방군수포를 ㄱ의 보법보다 앞에 놓았다. 틀린 표현: ㄴ → ㄱ. 올바르게는 ㄱ → ㄴ이며, 뒤의 ㄹ → ㄷ 순서는 맞다.

오답 포인트

ㄹ의 선무군관포와 ㄷ의 호포제는 모두 군포 부담을 넓힌 조치라 순서를 바꾸기 쉽다. 선무군관포는 균역법의 재원 보충책이고, 호포제는 양반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한 흥선 대원군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군역 제도는 조선 전기의 군정 확대와 방군수포를 먼저 놓고, 조선 후기 균역법 관련 선무군관포를 그다음에 둔 뒤, 19세기 호포제를 마지막에 놓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법 → 방군수포 → 선무군관포 → 호포제: 전기 군정 확대, 후기 군포 부담 확대이다.

NoteBase

문 18. 조선시대의 통치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대 국왕의 언행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태종 때부터 국조보감을 편찬하였다.

② 춘추관은 관청별 업무일지인 여러 관청의 등록(謄錄)을 모아 시정기를 정기적으로 편찬하였다.

③ 조선 초기부터 왕실 관련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에 관한 기록이나 장면을 모은 의궤를 만들었다.

④ 승정원의 주서(注書)는 왕과 신하 간에 오고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승정원일기를 작성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시대 통치 기록인 국조보감, 시정기, 의궤, 승정원일기의 편찬 시기와 기록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조보감은 역대 국왕의 언행 가운데 본보기가 될 내용을 가려 엮은 책이다. 시정기는 여러 관청의 업무 기록을 바탕으로 춘추관에서 정리한 기록이며, 의궤는 왕실·국가 행사의 절차와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기록이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의 주서가 왕명 출납과 국왕의 일과를 기록한 일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역대 국왕의 언행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 국조보감을 편찬했다는 설명은 맞지만, '태종 때부터'가 틀렸다. 국조보감의 편찬은 세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② O. 춘추관은 여러 관청의 등록을 모아 시정기를 정기적으로 편찬하였다. 시정기는 각 관청의 업무와 국정 운영 내용을 정리한 실록 편찬의 기초 자료이다.
③ O.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왕실 행사와 국가적 행사의 진행 과정, 필요한 물품, 참가자, 장면 등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④ O. 승정원 주서는 국왕과 신하 사이에 오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하여 승정원일기를 작성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은 국조보감의 성격을 맞게 제시한 뒤 편찬 시작 시기만 '태종'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록물의 용도와 편찬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조보감은 '역대 왕의 모범이 될 언행', 시정기는 '관청 업무 기록의 정리', 의궤는 '행사의 절차와 그림', 승정원일기는 '왕명 출납과 국왕의 일과'라는 핵심어로 먼저 구별한 뒤, 선지의 시기와 작성 주체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국조보감은 세종부터 모범 왕의 기록, 의궤는 행사 매뉴얼과 현장 기록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버지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 아첨하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평생 남의 노여움을 사고 비방을 받는 일이 아주 많았다. … (중략) …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세태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이런 세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아홉 편의 전(傳)을 지어 세태를 풍자하셨는데 그 속에는 왕왕 우스갯소리가 들어 있었다.

① 정조가 일으킨 문체반정(文體反正)의 주 대상 인물이었다.
② 주자성리학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였다.
③ 『청사열전』을 지어 김시습 등 도가(道家)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④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豪民)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박지원의 문학 활동과 조선 후기 사상가·문인들의 대표 저술 및 주장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세태를 풍자하는 아홉 편의 전을 지었다는 내용은 박지원의 한문 단편 소설을 가리킨다.

핵심 정리

박지원: 실학자이자 문인으로, 「양반전」·「허생전」 등 한문 소설에서 양반 사회와 당시 세태를 풍자하였다. 그의 새로운 문체는 정조의 문체반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정제두: 주자성리학의 경직성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조선에서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강화학파의 중심 인물이다.
홍만종: 「청사열전」에서 김시습 등 도가 계열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허균: 「호민론」에서 백성 가운데 경제적 여유와 식견을 지닌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의 '아버지'는 「양반전」 등 아홉 편의 전을 지어 세태를 풍자한 박지원이다. 박지원의 새로운 문체는 정조가 추진한 문체반정의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② X. '주자성리학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은 박지원이 아니라 정제두이다. 틀린 표현은 박지원에게 양명학의 체계화 업적을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정제두와 연결된다.
③ X. 「청사열전」을 지어 김시습 등 도가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한 인물은 박지원이 아니라 홍만종이다. 틀린 표현은 저술의 저자를 박지원으로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홍만종과 연결된다.
④ X.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호민론」의 저자는 박지원이 아니라 허균이다. 틀린 표현은 호민론의 주장을 박지원에게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허균과 연결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③·④는 모두 조선 후기의 대표 인물과 업적을 제시하여 그럴듯하지만, 각각 정제두·홍만종·허균의 키워드이다. 박지원에게는 세태 풍자 소설과 문체반정을 연결해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저술 매칭 문제에서는 먼저 인물의 고유 키워드를 분리한다. 박지원은 세태 풍자 한문 소설·문체반정, 정제두는 양명학, 홍만종은 「청사열전」, 허균은 「호민론」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박지원=「양반전」·문체반정, 정제두=양명학, 홍만종=「청사열전」, 허균=「호민론」이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방 며칠 전, 엔도 정무총감은 어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모욕하던 이 사람을 초청하여 일본인의 생명 보호를 애걸하였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정치범의 즉시 석방, 청년 학생의 자치대 결성, 정치적 활동의 자유 보장, 3개월 간의 식량 확보 등 4개 조항을 조건으로 내걸고 응락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동지들로 하여금 자치대를 조직하게 하였다.

① 반탁을 주도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②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하였다.
③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국민당을 창당하였다.
④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표방한 신민당을 결성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방 직전 총독부와 교섭하여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여운형의 활동을 다른 해방 정국 인물·정당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여운형: 건국동맹을 바탕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뒤에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었다.
이승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안재홍: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국민당을 결성한 중도 우파 인물이다.
백남운 등: 조선신민당을 이끌며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선지별 해설

① X.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치단체이다. 틀린 표현인 '이 사람'은 여운형이 아니라 이승만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여운형은 김규식 등과 함께 미군정의 지원 아래 추진된 좌우합작위원회에 좌측 대표로 참가하였다.
③ X. 신민족주의를 내세운 국민당은 안재홍이 결성하였다. 틀린 표현인 '이 사람'은 안재홍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내세운 신민당은 백남운 등이 이끈 조선신민당이다. 틀린 표현인 '이 사람'은 여운형이 아니라 백남운 등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좌우합작위원회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 ②는 맞지만, ①의 이승만·③의 안재홍·④의 백남운 계열 정당 활동까지 여운형에게 연결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방 직후 인물 문제에서는 먼저 지문의 행동으로 인물을 찾고, 이어 정당·단체의 대표 인물을 연결해 선지를 판별한다. 총독부와 교섭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인물은 여운형이다.

암기 포인트

여운형=건국준비위원회·좌우합작, 이승만=독립촉성중앙협의회, 안재홍=국민당·신민족주의, 백남운=신민당·연합성 신민주주의이다.

NoteBase